장흥군 '연수·명퇴 조건부 승진' 논란

贊 "심각한 인사 적체 해소 불가피"

反 "주민 외면…공무원들만의 잔치"

장흥군이 조기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등 조건부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 연말 A모 서기관을 명예 퇴직시키고 정년 퇴임이 임박한 6급 B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면장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

또 최근 서기관 승진 조건으로 C모 사무관이 조기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6급인 D모씨를 읍장 직무대리로 인사 조치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이같은 승진 조건부 인사를 2~3차례 추가 단행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공직사회에서는 심각한 공무원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불가피한 인사로 환영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사무관 승진대상자가 과잉 선발된데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조직개편 등 인사요인이 발생해 조건부 승진인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한 적임자 배치인 만큼 지나치게 내부 구성원들만을 의식한 한쪽에 치우친 인사라는 반론도 일고 있다.

일부 지역민들은 "적체 해소를 이유로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들만 승진시키는 것은 오히려 능력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군정업무 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흠 군수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서기관급과 사무관급 승진인사는 명퇴나 조기 퇴직을 전제한 '조건부 인사제도'를 운용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담양댐 뱃길 성묘 담양소방서가 설날인 7일 담양댐 뱃길 성묘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19 안전기동팀'을 가동했다. 담양소방서는 추월산 선착장에 구조대원 7명과 1.2t짜리 구조정 2대를 배치해 용면에서 금성면에 이르는 지역을 돌며 성묘객들을 운송했다. 뱃길 성묘가 가능한 담양댐 주변 분묘는 모두 210기로 매년 명절마다 100여명 이상이 뱃길을 이용해 성묘를 하고 있다. 〈담양소방서 제공〉

전남 친환경 농업 급성장

인증 면적 6만5천619ha … 전국의 53% 차지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이 전국 인증 면적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발표한 2007년 말 전국 각 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통계 분석 결과 전남도내 7만 929 농가가 참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총 경지면적 31만 3천408ha의 20.9%인 6만 5천619ha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지역 친환경 인증면적은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작면적 대비 인증 비율도 전국 시·도 평균치인 6.9% 수준을 3배 가까이 웃돌고 있다.

전남도의 친환경농업은 지난 2004년 4천57ha로 경지면적의 1.3%에 불과했으나 ▲2005년 1만 3천772ha (4.3%) ▲2006년 2만 9천43ha(9.1%) ▲2007년 6만 5천619ha(20.9%)로 급성장했다.

인증 단계별로는 3년 이상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산물이 1천476ha로 집계됐으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만 사용하는 무농약농산물 1만591ha,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기준량의 절반만 사용하는 저농약 농산물 5만 3천552ha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비 2천961억 원을 투입해 경지면적의 25% 수준인 7만 9천ha까지 인증 면적을 늘리고 오는 2009년까지 경지면적의 30%인 9만 8천ha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면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친환경농업 하면 전남'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다"며 "특히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미꾸라지 등이 되살아나고 곤충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등 생태환경이 복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UCC구민기자 모집

광산구, 구정 홍보

광산구가 지역 소식과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할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구민기자'를 모집한다. UCC 구민기자가 제작한 동영상은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전국 네티즌들에게 광산구를 널리 알리게 된다.

구는 미담이나 자랑거리, 각종 민원 등을 담은 UCC가 구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는 통로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한은 다음달 3일. 문의(062-940-8449).

/광산=기원태기자 wtkee@

곡성 심청축제 개최 장소 섬진강 기차마을로 고정

곡성 심청축제가 앞으로 매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

곡성군은 10일 "2008년 심청축제를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기로 했으며 앞으로 심청축제 개최 장소를 섬진강기차마을로 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1년부터 심청축제를 곡성읍 섬진강변에서 열어왔으나 지난해 10월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섬진강변 행사 장소가 침수되고 관련 설비까지 수해를 입자 장소를 섬진강기차마을로 임시 변경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변 철도를 달리면서 주변의 명승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지에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어 축제 개최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곡성군은 한편 2008년 심청축제의 세부 행사 프로그램을 이달 중순께 확정할 예정이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해남에 '먹거리 촌' 생긴다

대흥사 보리밥 촌·땅끝 활어회 촌 등 개발

해남군이 먹거리를 특화시켜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음식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먹거리 촌 조성에 나선다.

군은 삼산면 돌고개의 닭·오리촌과 함께 대흥사 보리밥, 사찰음식촌, 마산면 육일시 한우촌, 땅끝 활어회 촌 등을 오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절에 따라 땅끝 봄나물과 닭, 전복 삼계탕 등 테마요리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먹거리 촌 활성화를 위해 우선 홍보물 제작과 함께 입간판 설치, 업소 주방과 화장실 등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전남 화재 원인 1위는

화기 취급 부주의

겨울철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말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165건의 화재가 발생, 9명이 다치고 8억 5천만 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다. 이는 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5건에 비해 47.6%가 감소한 것이다.

원인별로는 화기 취급 부주의가 8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기 37건, 방화 16건, 기계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일반 건물 66건, 주택 61건, 차량 18건, 임야 6건, 기타 14건 순이었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건조기에 접어들면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따라 논·밭두렁 태우기, 담뱃불, 쓰레기 소각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경축 순환 농법 흑돼지

담양군, 무항생제 인증

담양군 고서면 초록영농조합법인이 무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축(耕畜) 순환 농법으로 기른 흑돼지 361마리가 최근 담양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담양군 4호로 지정됐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먹여야 하며 경영관리 기록, 적정 밀도와 전환기간 준수, 가축분뇨 자원화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야 한다. 고서면 주산리 일대는 지난 2005년부터 친환경지구로 지정돼 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함평 월야~상무대 농어촌도로 개통

함평군과 장성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월야~상무대간 농어촌도로가 지난 4일 개통됐다.

함평군과 장성 상무대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총 연장 3.6㎞의 이 도로는 지난 1994년 1차 공사가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11억원이 투입됐다.

이 도로 개통으로 기존 국도 24호선을 이용할 때 보다 이동 거리가 5.2㎞ 단축돼 교통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내년 전남 벼종자 공급량

4천900t 확정

국립 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순연)이 내년도 전남지역 벼종자 공급량을 올해보다 19% 증가한 4천900t으로 확정했다.

내년 공급량은 전남지역 벼 재배에 필요한 종자의 51%를 갱신(更新)할 수 있다.

전남지원은 미곡종합 처리장(RPC) 등이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인 '일미벼'는 지난해 715t에서1천850t으로 늘리고,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동진1호'는 지난해 1천803t에서 630t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강진, 8개면 오지마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강진군이 오지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강진읍과 군동면, 성전면을 제외한 8개면에서 운영된다.

12개 반 22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경찰서 민원을 비롯해 전기, 지적민원, 농기계수리, 가축상담, 의료서비스, 이동도서관, 일반민원 등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해준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